

‘철새 길목’ 전남 서해안 조류인플루엔자 초비상

전문가 “닭·오리 풀어 키우지 마세요”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원이 겨울철새의 분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철새남하 루트인 전남 서해안이 AI 비상에 걸렸다. <관련기사 3면>

전문가들은 철새가 AI를 보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만큼 이동경로를 철저히 방역하는 한편, 닭과 오리 등의 노천 사육을 자제하는 것만이 AI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이번 AI의 감염원이 겨울철새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에 걸린 닭이 발병한 익산의 경우 국내에서 대표적인 겨울철새 도래지인 금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며, 발병 시기도 철새 남하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감염경로는 철새 배설물과 접촉한 텃새가 바이러스를 면역력이 약한 닭·오리 등의 농장으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겨울철새가 AI 감염원으로 드러날 경우 철새의 대표적 도래지인 전남에도 AI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철새는 도래지에서 직경 40~60km 내 눈과 발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수집하는



데, 이 과정에서 노천 사육 중인 가금류와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시베리아와 몽골 등에서 남하하는 겨울 철새는 10월 말부터 강화도~천수만~금강하구~새만금(만경강·동진강) 등을 거쳐 서해안을 타고 해남 고천암호와 영암호 등에 정착한다.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철새는 내년 2월까지 고천암호 등에서 머물며 겨울을 난 뒤, 다시 북상한다.

올해 초 환경부가 실시한 ‘겨울철 조류 센서스(census)’에 따르면 고천암호에는 가창오리·쇠기러기 등 21종 13만7천133마리가 도래했으며, 영산호와 영암호에도 각각 8만5천여마리(39종)와 2만2천여마리(37종)가 찾았다. 올 겨울 역시 이미 가창오리와 큰기러기 등 수만 마리가 고천암호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전남도와 각 시·군이 철새 이동로를 철저히 방역하고, 이미 도래한 철새에 대해 샘플 조사를 벌여 AI 감염 정도가 심각하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AI가 사람에게도 전염 가능한 고병원성인 만큼 논이나 밭에 나간 농민들은 신발과 옷을 깨끗이 닦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두표(50) 호남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철새가 AI를 전염시켰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AI를 보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닭과 오리 등의 노천 사육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AI 감염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무등산 서석대 눈경

지난 2일 광주에 내린 첫눈으로 무등산 서석대에는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이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제 주도 30~40대 인구 전남 2022년께 절반 감소

내년부터 점차 줄어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30~40대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향후 국내의 생산·소비활동 전반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 생산의 주력이자 강력한 소비계층인 30~40대 인구가 올해 52만2천882명에서 내년에는 51만1천78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이 연령대 인구가 오는 2008년 49만7천368명으로 50만명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2015년에는 39만3천명으로 40만명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16년 뒤인 2022년에는 전남의 30~40대 인구가 29만2천382명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게 된다.

이는 경제적 주력 계층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향후 지역 내 생산·소비활동

위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는 30~40대 인구가 올해 48만2천743명에서 5년 뒤인 오는 2011년에는 48만4천411명까지 소폭 증가한다. 그러나 2012년 48만4천230명으로 감소한 뒤 2016년에는 46만9천238명까지 떨어지는 등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은 올해 1천675만4천7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 1천671만6천100명, 2009년 1천655만6천명, 2015년 1천587만900명, 2030년 1천308만2천300명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화물연대 파업 내일 고비

건교위 화물관련법안 심사

4일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광양·부산 등 전국 각지의 항만과 산업단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화물 관련 법안 심사 결과가 나오는 5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화물연대는 현재 ▲노동기본권 보장 ▲표준요금제 도입 ▲주선료 상한제 관련 입법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은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노동관계법과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법안이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입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될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발의안의 법제화가 무산되면 장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은 3일 비조장 ▲표준요금제 도입 ▲주선료 상한제 관련 입법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은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노동관계법과 화물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신당파 ‘당 진로 묻는 것’ 친노파 ‘신당 추진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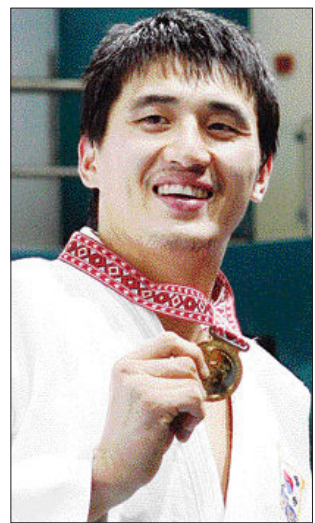
與 ‘정계개편 설문’ 충돌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의 진로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데 대해 친노(親盧)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통합신당파와 친노파간 세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우리당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 정계개편의 방향 등 당의 진로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놓고 설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내 친노파는 “설문조사는 전당대회 없이 우리당 해체와 신당 창당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도 장성호 도하AG 첫 금

한국이 도하아시아게임 첫 날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유도 장성호(수원시청·사진)가 호쾌한 한판승으로 금메달의 감증을 한꺼번에 풀었다. <관련기사 22·23면>

한국은 대회 개막 첫 날인 2일(이하 한국시간) 도하아시아게임에서 장성호의 금메달을 포함해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를 따냈으나 중국(금16,은5,동2), 일본(금3,은6,동3)보다는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3일(오전 현재)에는 사격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남자유도 중(重)량급의 간판 스타인 장성호는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이시이 사토시(일본)를 상대로 종료 11초를 남겨 놓고 한판승을 거두며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

개막식 직후 가장 먼저 열린 사격에서 한국은 내시 대회 첫 금메달까지 바라 봤지만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에 머물렀다. 수영 경영에서는 한규철(전남수영연맹) 등이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혁신도시 광주·전남

살기 좋은 도시, 지아상상을 관입하는 도시

혁신도시가 실현하겠습니다.

별종과 첨단산업에 최적화 Green+Energyplus

혁신도시의 성공은 우리지역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우리지역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우리지역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우리지역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